

# 혁신도시 가로등 에너지 낭비 논란

## 나주시의회 “평균 두배 밝고 간격 촘촘”

## LH “도로 여건 달라 일률 적용은 무리”

토지개발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 도시공사 등이 나주 혁신도시에 가로등을 지나치게 밝게 설치하고 있어 예산과 전력낭비라는 지적이다. 18일 나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김철수 의원은 “2007년 개정된 ‘KS 도로조명 기준’에 적용하면 혁신도시 도로에는 m<sup>2</sup>당 1.0~1.5 칸데라(cd) (15~17룩스)가 적정하고, 국토해양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등주 높이가 8m의 경우 간격은 24~28m, 10m의 경우 30~40m로 설치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혁신도시 시 3사가 시공중인 가로등은 밝기가 22룩스(Lux), 등주는 10m의 높이에 18~21m의 간격으로 설치되고 있

어 에너지 소비율이 최대 200~400%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가 완공돼 나주시에 이관되면 과다한 전기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시공사와 나주시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 시설 및 관리지침에는 주요한 도시 교통로 m<sup>2</sup>당 조명 휘도 기준은 1.0~1.5칸데라(cd)(15~17룩스)로 규정돼 있다.

나주시는 시공 3사에 지난 3월 19일, 5월 3일, 6월 13일 등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도로조명 기술기준(KS A3701) 및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1년 개정된 도로조명의 운용(감광 및 조절방법), 조절방법(광속의 조절) 등 정부의 지침에 의한 공법으로 반드시 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요구한 도로조명의 운용 방식이 초기 건설비용은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차후 저렴한 유지관리와 도로조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일부 예산 관리를 변경해서라도 준공 후 인계·인수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시공사에 여러 차례 요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해 시공사에 LED등과 조도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제어시스템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14개 항목을 요구했다”며 “시는 ‘KS A3701 기준’ 등에 의해 건설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설계 내역시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다소 협력체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LH공사는 배관·배선규격 변경 등에 따른 막대한 초기 건설공사비가 투입돼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일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도로조명 운용(밝기조절)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연간 전력 소비량은 -6.6% 감소하는데 비해 예산은 23%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LH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KS A3701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며 “일부 주장은 도로가 크기별, 여건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해 이해하다 보니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도로변에 세워진 가로등. 나주시는 LH에 LED등 설치 등 전기 절감 공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 ‘다산 정신’ 계승

### 21~22일 강진 국민체육센터서 ‘다산제’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의 실학사상과 민본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제12회 다산제(茶山祭)’가 21일~22일 이틀간 강진 국민체육센터 및 도암면 정다산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첫째 날인 21일은 호수공원의 다산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다산 추모제가 다산초당에서 열린다.

둘째 날인 22일은 장흥·강진 통합 시조 경창대회가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는 ‘청소년 다산 골든벨’ 및 ‘토요 문화학교 연극팀’ 공연이 마련되며, 강진여중 강당에서는 ‘다문화음식 축제’가 열린다.

이밖에도 다산선생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강강술래와 농악놀이, 노래자랑, 수제차 시음회가 열린다. 원용호 강진 문화원장은 “이번 다산제는 다산선생이 남긴 고귀한 문화



유산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산제는 다산선생 유배 200주년인 지난 2001년부터 다산선생을 추모하고자 강진군이 주최하고 다산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열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보건소 ‘건강 지킴이’ 인증

### 올 보건사업 평가 6관왕

화순군 보건소(소장 김연옥)가 올해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굵직한 상을 6차례나 잇따라 수상했다.

18일 화순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 주관 감염병역학조사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지난 5~6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린 2012년도 전국 보건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 ‘내포애(愛) 한방애(韓方愛) 지역양생교실’ 운영을 주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장흥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시·군 보건홍보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남 지역 알선터가 주관 실



시한 ‘알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군 보건소 직원과 노인건강대학 수강생들이 함께 참가한 ‘2012년 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는 백합상을 받은 바 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내년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운주사를 창건한 도선국사가 천불천탑을 세운 후 미지막으로 일으켜 세우려다 새벽닭이 울어 누워있는 형태로 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와불.

## “군민 지혜 모아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 화순군, 내일 하니움 스포츠센터서 워크숍

‘천불천탑’과 ‘와불(臥佛)’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화순 운주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순군은 20일 오후 2시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전문가 워크숍을 연다. 군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 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운주사에는 연화탑,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강진 농산물 산지 유통·급식센터 설치

### 2016년까지 60억 투입

강진군이 오는 2016년까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학교 급식센터를 설치한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음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모두 60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산지 유통센터

(5270m<sup>2</sup> 규모)와 학교급식센터(2100여m<sup>2</sup>)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내년까지 파프리카, 딸기, 단감 등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확대하고 원활한 원료 공급에 나서도록 농가조직의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진군 원예농산물은 대부분 농가가 인근 대도시 경매시장에

직접 수송하고 별도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한 가격에 원예 농산물을 출하해 왔다. 이번 통합마케팅 조직 구성과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면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과 체계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농산물 유통이 체계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영암군 추가경정예산 4079억

영암군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079억원으로 편성해 제213회 영암군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4047억)보다 0.8%(3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은 회계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1억이

증가한 356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이 증가한 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이 감소한 449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5억원, 국가지원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7억원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31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버영안

정 대책비 50억원 ▲운수업체 유류대지원 14억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5억원 ▲태풍피해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다 복구공사 4억원 ▲영암농공단지 조성 3억원 ▲브랜딩 경영체 시설행대회 이자지원 1억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등이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